

지역 소식통

정읍시, 행안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회적 고립 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확보된 국비 등을 포함해 총 1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읍우체국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매일 한 차례씩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생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배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가구별 근황과 위기 징후 등의 정보는 즉시 시로 전달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결혼이민자 고향

나들이 40가구 선정·지원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올해 총 4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 실질적인 방문 경비가 지급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40가정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상반기 대상자 21가구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자유롭게 일정을 정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 삶 전반 아우르는 정책 추진

부안군, 청년정책 위원회 개최... 5대 핵심전략·12개 부서 49개 과제 시행계획 확정

부안군은 지난 9일 부안군 청년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부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6년도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12개 관련 부서에서 총 117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군청 회의실을 벗어나 청년 위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팜 현장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통해 청년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2026년 시행계획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

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정착형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생활 안정 기반 확충 등 청년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군은 매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성과 점검과 정책 보안을 병행하며 청년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보건소,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본격화

관내 14개 읍·면 보건지소·진료소 중심... 맞춤형 건강교실·체험·실천형 프로그램 운영 등

고창군보건소(소장 유병수)가 관내 14개 읍·면의 보건지소·진료소 총 36개소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지소·진료소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건강교실을 연중 운영해 주민 친화적 보건기관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단기·일회성 건강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지소·진료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걷기, 영양, 금연, 만성질환 관리, 낙상 예방, 어르신 정서 돌봄 등 보건교육과 만들기(공예, 원예),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체험·실천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주 1회, 10~1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 전·후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도 병행한다. 특히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0일 제37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랑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늘어선 지역의 신규 대입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미래 산업 투자 사업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회장 김춘옥)가 주최·주관한 '2026년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한마음대회'가 10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성료

회원 700여명 참석... 1부 기념식·2부 화합행사 진행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회장 김춘옥)가 주최·주관한 '2026년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한마음대회'가 10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농촌지도자회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역대 1대·6대 황귀선 전 회장(상하면)과 군연합회 김상현 재무(아산면)가 중앙 및 도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창 농업 발전과 군정

협력에 앞장선 읍·면 우수회원 14명이 군수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부터 자매결연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회장 이석근) 임원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양 단체는 농특산물 상호교환식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혔다.

2부 화합행사에서는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8곳 환경 개선

총 6400만원 예산 투입... 바닥재·도배지·냉난방기 교체 등

정읍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한 민간 어린이집 4개소와 가정 어린이집 4개소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총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모든 공사와 장비 구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현장의 수요가 높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집중된다. 바닥재와 도배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냉난방기와 제습기, 보일러 등을 정비한다.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민간 보육 현장에 직접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저출산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시설 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